



TV 드라마 메시지의 낙인 효과

극 중 만성질환 신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관련 집단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을 중심으로*

차유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수료 iloo@sochang.ac.kr

나은영**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ena@sochang.ac.kr

본 연구에서는 우선 TV 및 신문에서의 심혈관계 질환 관련 메시지에 대한 내용 분석을 예비연구로서 실시했다. 이어서, 만성적 심혈관계 질환의 신체 장애인에 대한 TV 드라마 메시지 유형들(낙인 단서, 악인 캐릭터 단서)이 극중 장애 인물에 대한 부정적 감정, 관련 집단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험 연구로 파악하였다. 심혈관계 질환 비관련 집단의 일반 남녀 대학생 및 회사원들에게서 수집한 최종자료를 바탕으로(N=350), 부정적 고정관념을 공 변인으로 한 2(낙인형-반낙인형)×2(악인 캐릭터 단서 없음-있음) 공분산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극중 장애 인물에 대한 부정적 감정, 관련 집단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에 미치는 낙인 단서의 효과가 검증되었다. 낙인 단서와 악인 캐릭터 단서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부정적 감정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낙인

* 이 논문의 후반부는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201110071,01)의 지원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논의가 담길 수 있도록 조언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 그리고 예비연구를 성실히 도와준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권예지 양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 교신저자

단서와 사회적 친밀감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감정의 매개효과가 배편과 캐니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통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미디어에서의 특정 메시지 유형이 일상 관련 집단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내에서 간과되었던 만성질환 신체장애인, TV 드라마 연구와 관련하여 낙인 효과를 처음으로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

KEYWORDS 낙인 효과 • TV 드라마 • 만성질환 • 부정적 고정관념 • 사회적 친밀감

1. 문제 제기

인간이라면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다. 질병은 단지 고쳐야 할 병일뿐임에도 신체 질환이 개인이나 집단을 구속하고 불평등하게 만들기도 한다.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체적 고통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비하한다는 고통이다(Songtag, 1989). 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어의 건강 관련 메시지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의 영향력이 큰 이유 중 하나는 특정 부분을 더 두드러지게, 즉 현저히 눈에 띄게 묘사할 수 있는 미디어의 특성에 기인한다(Singer & Endreny, 1993). 미디어의 표현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가치·태도를 형성하는 데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울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도 작용할 수 있다(Paluck, 2009). 따라서 웰빙 시대에 넘쳐나는 건강정보 양의 문제와 더불어 정보의 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Parker & Thorson, 2009).

장애인 복지 법에 따르면, ‘신체장애인’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나 내부기관에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지금까지의 장애인 관련 메시지 연구들은 대부분 ‘선천적’ 장애인에 초점을 맞추었고, 후천적 장애인을 다룰 때 도 어

편 ‘물리적 사고’에 의한 장애인을 다루는 데 국한되었다. 하지만 장애인 실태 조사(보건복지부, 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장애는 후천적 원인이 90.0%에 이른다. 심혈관계 질환은 국내 사망원인 2위이며, 1위인 암과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김길원, 2006). 그 가운데 만성적 심혈관계 질환이 원인이 되어 신체 장애인이 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만성질환’은 ‘천천히 진행되며 오랫동안 지속되는 질병’이다. ‘이환 증세를 환자가 스스로 알기 어려우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결국 점점 나빠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연령이 많아지면서 그 유병률이 증가하며, 합병증 등으로 인해 기능 장애를 동반하는 질병’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이민규, 김영은, 2009). 만성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이 절실해 지고 있는 오늘날, 이 질환을 둘러싼 미디어 메시지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상대적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임에 틀림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 비질환자와 구별되는 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은 환자의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해악을 불러일으킨다(Falvo, 2009). 질환이나 질환자에 대한 ‘낙인’ 역시 매스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유형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 그 메시지는 ‘스티그마형(Stigma format: 낙인형)’ 및 ‘챌린지형(Challenge format: anti-stigma format: 반 낙인형)’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Smith, 2007b). 전자의 메시지가 심혈관 질환에 대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상 낙인을 유발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졌다면, 후자의 경우는 이러한 낙인 극복의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를 지닌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성적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하여 주요 매스미디어의 낙인형 메시지가 가지는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연구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기 위하여, 국내 주요 매스 미디어인 TV와 신문의 메시지를 대상으로 한 내용분석을 사전연구로 진행하였다.

2. 예비연구

1)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낙인의 개념, 차원 및 기능

일반적으로 ‘낙인(stigma)’은 ‘바람직하지 않은 차이’를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불명예스러운 특성’이라 할 수 있다(Goffman, 1963). 커뮤니티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공유하는, 일종의 사회적 개념이다. 낙인화(stigmatization) 과정은 눈에 띄는 특성이나 표시에 기반해 어떤 사람이 속하는 집단의 범주를 인식하고, 그렇게 표시된 사람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것이다(Brown, et al., 2003; Dovidio, et al., 2000). “사람들은 자기 집단의 효과적인 기능에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특성과 행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는다 (Neuberg, et al., 2000, p. 34).” 좋지 않게 생각되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사회 전체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낙인을 찍어 백안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낙인은 커뮤니티의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며, 개인적·집단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Smith, 2007a).

낙인과 관련된 근래 학술적 접근은 거프만의 전통적인 연구에서처럼 질병과 장애에 관한 연구의 관점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인다(Pilgrim & Rogers, 2005). 그러한 가운데 사회적 낙인은 여전히 크게 두 가지 차원, 즉 ‘가시성’과 ‘통제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된다(Crocker, et al., 1998). ‘가시성’은 사회적 낙인이 사람들에게 육안 상 외면적으로 확인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통제가능성’은 통제가능하다고 지각되는 질환(예: 비만)인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낙인의 대상을 사람들이 더욱 부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이 핵심이다(Gass & Seiter, 2007). 표시를 부여하는 과정이 얼마나 가시적인지, 그 표시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그 표시에 의해 어떤 위협이 생기게 되는지 등에 따라 낙인찍기가 강하거나 약하게 형성될 수 있다(Jones, et al.,

1984). 강력한 낙인 메시지는 ‘강한 부정적 감정’을 일으켜, 낙인화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Smith, 2007b, p. 238).

(2) 질환 및 미디어적 특성에 따른 낙인 단서의 재구체화

‘가시성’은 극도의 비만인 사람들과 에이즈 초기 혹은 간질 환자들 간 비교가 가능하다. 비만 체형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은 사람들에게 가시적일 수 있지만, 에이즈 초기 환자들이나 간질 환자들은 비교적 비가시적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지각자들이 그 가시성에 따라 대상에 대한 정보처리를 하며, 낙인의 대상(비만 체형자) 역시 자신에 대한 이러한 편견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 비만 체형을 가진 이들은 가시적 차원에서 명백하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속성 모두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면에서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한 연유로 낙인 관련 연구들은 국내외에서 주로 에이즈, 정신 질환 등과 같이 남으로부터 차별받기 쉬운 소수집단과 관련하여 많이 이루어져 왔다(정의철, 2008; Brown, et al., 2003; Davidson & Wallack, 2004; Penn, et al., 2003). 비교적 최근의 국내 연구 사례로, 정의철(2008)은 에이즈 보도물 프레임링을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 연구는 에이즈 질환자가 ‘사회적 소수’라는 점에서 약자의 고충을 우선시 했고, 보건 보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소수만이 해당되는 질환인 ‘에이즈’ 관련 정보를 다루었다는 점에서는 사회적 파급 효과와 적용 범위에서 나름의 한계를 지닌다. 감기처럼 일반적이면서 일시적인 질환의 경우나 정신질환이나 에이즈처럼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낙인화될 수 있는 질환의 경우는 미디어 메시지의 낙인형 메시지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보편적이면서 일시적인 질환의 경우에는 정서적 차원으로까지 누적적으로 연결될 만큼의 진지함과 심각성은 지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 정신질환이나 에이즈 같은 질환은 치명적 수준의 ‘이름 붙이기’, 즉 대중적 질환과는 차원이 다른 사회적 낙인의 명예를 이미 잃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펜 등(Penn, et al., 2003)은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대한 다큐멘터리 필름의 영향력을 알아보는 실험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정신분열증에 대한 일반적 태도,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들과의 교류 의도는 다큐멘터리 필름에 의해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는 비교적 보편적이면서 만성적인 질환이다. 신문이나 TV 등 주요 미디어에서 어떤 유형으로 메시지를 내보내느냐에 따라 그 질환에 대한 사람들의 표상이 달라질 여지가 더 확대된다. 하지만 비교적 연관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로는 대체로 일반적인 의료 정보의 내용분석이나(안운옥, 1997), 암 관련 보도의 적절성 연구(박정의·이상규, 2002; 이동수, 1996), 그리고 보다 최근에 인간 유전체 연구의 보도 경향을 분석하면서 건강 커뮤니케이션적 함의를 살펴본 연구(나은영, 2004), 에이즈 프레이밍에 관한 연구(정의철, 2008), 신문·TV 뉴스의 신종 출몰형 질환 및 만성질환 보도 패턴 분석(주영기·유명순, 2010) 등 몇 편이 눈에 띄는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에서의 낙인 메시지 연구에 있어서 만성적 심혈관계 질환의 특이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이미 언급한바 있는 국내 선행연구들은 정신질환이나 에이즈 같은 질환에 편중되어 있는 것 외에도, 건강 관련 메시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통적으로 ‘신문 보도’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적 영향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 매스미디어임을 상기할 때(Bryant & Thompson, 2002), 건강정보의 부정적 영향력은 어느 특정 미디어 장르에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스미스(Smith, 2007b)는 건강 관련 주제가 미디어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스티그마 유형(낙인형)’과 ‘챌린지 유형(반 낙인형)’으로 나눠 조사하였고, 잡지 광고에는 주로 반 낙인형이 많이 사용되는 반면 정부 간행물에는 낙인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더불어, 질환의 종류에 따라라도 암이나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반 낙인 유형이, 결핵이나 흡연의 경우에는 낙인 유형이 더 많이 쓰인다는 결과도 얻었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하여 TV 및 신문에서의 낙

인형 메시지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는 스미스(2007b)의 분석틀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 당시 ‘낙인형’으로 분류된 단서들로는 표시/가시성(marks),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책임(responsibility), 회피(avoid), 위험(peril), 건강 라벨(health labels), 부끄러움/혐오감(shame/disgust), 이와 대조적인 ‘반낙인형’으로 분류되는 단서들로는 낙관(optimism), 가능성(hope), 사회적 수용(social inclusion), 의인화(personification), 투지(fight) 등과 같은 항목 등이 있다. 그러나 몇몇 내용들은 본 연구에서 주시하는 질 환경, 미디어, 언어문화 상 차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면을 가진다. 첫째, 그 연구에서 초점을 맞췄던 포스터나 잡지의 콘텐츠에서는 언어 및 시각적 전략 측면에서 질병을 ‘의인화’하는 경우가 많지만, TV와 신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둘째, ‘사회적 배제’를 의미하는 단서인, “우리” 표현/“그들” 표현이 본 예비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미디어(TV·신문)나 한국적 배경과 어울리지 않는다. 스미스의 연구에서는 언어적 구성 메시지의 소재가 되는 인물 대상이 사회적 내집단의 구성원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를 그 대상에 대한 지칭 대명사의 표현방식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신문 보도에서는 일인칭 복수 대명사를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용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는, 구어체가 쓰이는 TV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미국과 달리 집단주의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일인칭 대명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교적 보편적인 병은 좀 더 간접적으로, 그러나 훨씬 더 교묘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배제된다(김창엽, 2003). 따라서 ‘사회적 배제’를 광의의 차원에서 재 개념화 하는 것도 가능한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본래 그 개념은 적절한 사회적 참여 및 통합의 결여, 권한의 결핍과 같은 관계적 문제와 밀접한 것이다(배화옥·김유경, 2009 재인용). 단순히 물질적·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문화적·심리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다차원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심창학, 2001). 이러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사회집단 간 행동에 있어 외집단 보다 내집단을 호의적으로 보는 경향을 의미하는 내집단 편애(in-group favoritism)와도 연관된다(김미희 등, 2005 재인

용). 셋째, 이처럼 ‘사회적 배제’의 개념범주가 넓어지면 “회피(avoid)”도 그 항목에 자연스럽게 포함된다. 끝으로, “위협”의 범주 역시, 보다 확대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 비교적 흔치 않은 정신질환, 에이즈와 같은 질환에 비해 심혈관계 질환은 상황적으로 타인의 신변에 위해를 끼친다는 느낌을 직접 유발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김창엽(2003)은 차별의 매커니즘을 설명하면서, 정상인들은 질병이나 장애를 가짐으로써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비정상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안녕이 일종의 위협을 받는다고 본다. 반드시 장애나 질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꼭 같은 논리로 사회적인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노인이다. 한 사회의 성원들이지만, 비질환자들은 다른 성원인 질환자들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나누려 하기보다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기피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처럼, 낙인 단서에 있어서 기타 질환들과 또 다른 함의를 가진 만성적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메시지가 TV와 신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예비연구문제를 설정했다.

- 예비 연구문제 1: 국내 주요 일간지와 TV 프로그램에 나타난 심혈관계 질환 관련 메시지는 낙인형, 반 낙인형의 분포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3) 연령·성별 낙인 단서

건강에 대한 책임을 환자 스스로에게 지게 하는 정보의 형태가 많다(Wallack, 1989). 낙인의 피해자들은 교육·고용·가족·건강·사회 참여 영역에서 배제되기 쉽다(배화옥·김유경, 2009; 김창엽, 2003). 미디어 속의 심혈관계 질환자의 인구 사회적 범주에 따라 전달된 메시지 양이 다르다면, 이는 낙인찍기를 더 촉진시킬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고정 위험요인에는 연령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 내 심혈관계 질환 관련 대중적 정보의 내용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국민 다수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보호

차원에서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남녀 범주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된다. 심혈관계 질환은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영경, 2011). 여성장애인은 여성이자 동시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반 여성에 비해서 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 가정과 사회에서 가중적인 차별과 소외를 받는다(배화옥·김유경, 2009). 결국,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낙인 효과의 폐해가 결과적으로 어떤 젠더에서 일어나기 쉬울지를 고려해 하는 지표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설정될 수 있다.

- 예비 연구문제 2: 국내 주요 일간지와 TV 프로그램에 나타난 심혈관계 질환 관련 메시지의 낙인형, 반 낙인형 분포는 대상 인물의 연령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2) 예비연구의 방법

(1) 자료 수집과 표본 선정

본 예비 연구에서는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지상파 TV 3사 4개 채널(MBC, KBS1, KBS2, SBS) 프로그램, 신문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국내 주요 일간지(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의 기사 콘텐츠 대상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우선, 방송사의 경우 각각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목이나 본문을 대상으로 텍스트와 동영상 자료(보도, 교양, 오락)를 수집했다. 검색어로는 15개의 키워드(심혈관, 심장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저혈압, 부정맥, 심부전, 뇌졸중, 뇌출혈, 심장마비, 심근경색, 관상동맥, 협심증, 심근허혈)가 쓰였다. 드라마처럼 1회 방영분에 하위 코너가 없는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보도 프로그램처럼 진행인물이나 주제에 따라 하위 코너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코너(진행 인물/주제)를 기준으로 메시지 사례 집계가

이뤄졌다. 일간지 기사 검색을 위해서는, 한국 언론재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카인즈(Kinds)를 이용했다. 당시 그곳에서 검색이 불가능했던 일간지인 조선, 중앙의 자료는 각 신문사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수집했다. 그 결과 1차 수집 자료는 TV 방송사에서 562건, 신문사에서 1340건으로 총 1902건이었다. 그 중에는 키워드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전체 프로그램 중 최소 해당 코너의 방영 분량이나 시간이 극도로 짧아 연구 문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연구자들이 직접 가려내어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그렇게 하여 최종 수집된 사례는 총 877건(TV 방송 536건, 신문 기사 341건)이었다.

(2) 분석 유목과 신뢰도 검증

본 예비연구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정보의 미디어, 소재 인물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기본 유목을 설정했다. 또한 낙인 관련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스미스(Smith, 2007b)의 연구에 제시된 스티그마 유형(stigma format)과 그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챌린지 유형(challenge format)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용어의 개념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낙인형’, ‘반(反) 낙인형’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유형에 포함되는 내용단서들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해 <표 1>에서처럼 분류했다(예비연구의 이론적 배경 참조).

코더들은 사전 훈련된 대학원생 2명으로 구성됐다. TV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VOD 시청에 앞서, 방영분의 인터넷 스크립트를 확인하는 일괄과정을 거쳤다. 이후 유목 해당 표현 여부(해당=1, 해당 외=0)를 VOD 시청 과정에서 재확인 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표 1>에 근거해 분류한, 반 낙인 및 낙인 유형은 기준에 따른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유목이었다. 표본추출량은 전체 양의 5% 내지 7%가 적절하므로(Kaid & Wadsworth, 1989), 각 유목에 대한 코더 간 신뢰도를 측정기 위해 총 표본의 약 7%인 60개 사례를 무작위로 추출했다. 내용 분석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홀스티(Holsti) 지수를 이용해 신뢰도 계수를 도

표 1. 낙인 유형과 반 낙인 유형으로 분류된 내용

유형	범주	내용
반 낙인형	낙관	심혈관계 질환 환자들의 웃는 모습, 밝은 모습, 희망 관련 표현
	가능성	심혈관계 질환 환자들의 가능한 일상생활(먹기, 뛰기, 친교 등) 관련 표현
	투지	심혈관계 질환 극복이나 치료 성공 관련 표현
	사회적 수용	심혈관계 질환 환자에 대한 가족, 친구, 이웃, 사회 등의 지지 관련 표현
낙인형	비관	심혈관계 질환 환자들의 일상 슬픔, 우울함 등 부정적 정서 관련 표현
	절망	심혈관계 질환 환자들의 치료 상 고통, 죽음 관련 표현
	표시	심혈관계 질환 환자 특유의 외면상 특징, 모습, 행동 관련 표현
	위험	심혈관계 질환자의 재정적, 신체적 곤경/위험 관련 표현
	책임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을 환자 개인의 과실, 잘못으로 두는 표현
	사회적 배제	심혈관계 질환자를 직간접적으로 꺼려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표현

(0 = 해당 외, 1 = 해당)

출했다. 그 결과, 반 낙인형'은 .87, '낙인형'은 .91로 나타났다. 또한, 심혈관계 질환 관련 메시지 유형의 신뢰도, 타당도 분석을 위해 요인별 분석을 실시했다. 아이겐 값이 허용치 1.0 이상으로 추출된 요인은 예상대로 총 2개였다. 전체 변량의 약 68.47%가 이들 요인으로 설명됐다 (Cronbach's α : 낙인형: 84; 반 낙인형: 94).

3) 예비연구의 결과

(1) <예비 연구문제 1>의 결과: TV와 신문에 나타난 낙인 및 반 낙인형 메시지의 분포

① 낙인 및 반 낙인 유형의 하위 범주 분포: 전체 미디어 사례(877건)에서 반 낙인 유형의 하위범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사회적 수용(270건, 30.8%)'이었다. 그 다음은 '투지'(235건, 26.8%), '낙관(232건,

표 2. 낙인형 및 반 낙인형의 하위 범주 TV 및 신문 메시지 빈도

유형	범주	TV = 536		신문 = 341		N
		N	%	N	%	
반 낙인	낙관	208	38.8%	24	7.0%	232
	가능성	200	37.3%	26	7.6%	200
	투지	206	38.4%	29	8.5%	235
	사회적수용	234	43.7%	36	10.6%	270
낙인	비관	367	68.5%	30	8.8%	397
	절망	360	67.2%	77	22.6%	437
	표시	346	64.6%	75	22.0%	421
	위험	374	69.8%	198	58.1%	572
	책임	344	64.2%	253	74.2%	597
	사회적 배제	229	42.7%	130	38.1%	359

26.5%), ‘가능성(226건, 25.8%)’ 순이었다. 낙인 유형의 하위 범주에서는 ‘책임(597건, 68.1%)’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그 다음이 ‘위험(572건, 65.2%)’, ‘절망(437건, 49.8%)’, ‘표시(421건, 48.0%)’, ‘비관(397건, 45.3%)’ 순이었고 ‘사회적 배제(359건, 40.9%)’가 가장 낮은 분포로 나타났다(미디어별 결과는 <표 2> 참조).

② 낙인 및 반 낙인 유형의 전체적인 분포: 각 사례의 평균이 낙인형, 반 낙인형이라는 각 요인성분의 중간치인 0.5를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해당 메시지의 유형을 ‘낙인형’·‘반 낙인형’·‘혼합형’·‘가치 배제형’으로 구분했다(<표 3> 참조). 즉, 혼합형은 동일한 메시지가 낙인형과 반 낙인형 모두에서 모두 0.5를 넘는 경우이고, 가치 배제형은 낙인형과 반 낙인형 양쪽 모두에서 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 결과 낙인형이 전체의 37.7%(331건)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가치 배제형이 33.5%(294건)에 달했고, 반 낙인형이 19.6%(172건)이었다. 낙인형과 반 낙인형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혼합형은 전체의 9.1%(80건)로 가장 낮은 빈도를

표 3. TV와 신문에 나타난 심혈관계 질환 메시지의 낙인형과 반낙인형 분포

		낙인형		계
		해당 O	해당 X	
반 낙인형	해당 O	80 (혼합형)	172 (반 낙인형)	252
	해당 X	331 (낙인형)	294 (가치 배제형)	625
전체		411	466	877
χ^2 (df=1)		32.456 (p < .001)		

보였다. 카이검증 결과도 유의미하여($\chi^2=32.456$, $p < .001$), 이러한 비율 차이가 의미 있는 것임이 증명됐다. 에이즈나 정신질환에 비해 비교적 보편적이라고 생각되는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에도 낙인형이 반 낙인형보다 월등히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③ 미디어 유형별 낙인형, 반 낙인형 메시지의 분포: 네 가지의 메시지 유형과 미디어 유형에 따라 전체적으로 χ^2 검증을 실시하여, 크게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chi^2=395.348$, $p < .001$, <표 4> 참조). 심혈관계 질환을 다루는 TV 프로그램 중에서는 50%가 낙인형을 전달하고 있었다.

표 4. 미디어 별 심혈관계 질환 메시지 유형의 차이

메시지	매스미디어별		계 (%)
	TV	신문	
낙인형	268(50%)	63(18,5%)	331(37,7%)
반 낙인형	148(27,6%)	24(7,0%)	172(19,6%)
혼합형	75(14,0%)	5(1,5%)	80(9,1%)
가치 배제형	45(8,4%)	249(73,0%)	294(33,5%)
전체	536(100%)	341(100%)	877(100%)
χ^2 (df=3)	395.348 (p < .001)		

반 낙인형을 전달하는 메시지는 27.6% 정도인 반면, 신문 기사의 경우는 낙인형도 반 낙인형도 아닌 가치중립적인 메시지가 73%였으며, 낙인형은 18.5%, 반 낙인형은 7%에 불과했다.

(2) <예비 연구문제 2>의 결과: 연령·성별 낙인형, 반 낙인형 메시지의 분포

주요 일간지와 TV에 등장하는 심혈관계 질환 관련 인물의 연령대(미성년: 만 19세 미만, 청년층: 만 19세~39세, 중장년층: 만 40세~59세, 노년층: 만 60세 이상)에 따라 낙인형과 반 낙인형의 분포를 분석했을 때에도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 = 173.341$, $p < .001$, <표 5> 참조). 노인 대상의 기사나 프로그램일 경우, 낙인형으로 전달되는 비율이 전체의 10.8%(95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노년층의 심혈관계 질환을 다룬 프로그램이나 기사가 201건으로 전체의 22.9%를 차지했는데, 이것을 100%로 보았을 때에는 낙인형이 무려 47.3%, 반 낙인형은 22.9%로서, 낙인형이 반 낙인형의 2배를 웃돌았다. 그러나 2(중장년층-노년

표 5. 사례 인물 연령대별 심혈관계 질환 메시지 유형의 차이

메시지	인물 연령대별						계 (%)
	단독				혼합 (%)	거론되지 않음(%)	
	미성년층 (%)	청년층 (%)	중장년층 (%)	노년층 (%)			
낙인형	10 (1.1%)	20 (2.3%)	30 (3.4%)	95 (10.8%)	20 (2.3%)	156 (17.8%)	331
반 낙인형	3 (0.3%)	2 (0.2%)	11 (1.3%)	46 (5.2%)	13	97 (11.1%)	172
혼합형	0	3	12	46	0	19	80
가치 배제형	8	10	7	14	18	237 (27%)	294
전체	21 (2.4%)	35 (4.0%)	60 (6.8%)	201 (22.9%)	51	509 (58.0%)	877 (100%)
χ^2 (df=15)	173,341 ($p < .001$)						

층)×2(낙인형-반 낙인형) 부분에 대한 카이검증은 유의미하지 않아, 다른 연령대도 대체로 낙인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는 메시지 빈도는 낮지만, 낙인형과 반 낙인형 비율의 차가 10:1로 크다. 하지만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노년층이 많이 거론된다는 점에서 이 연령대의 낙인화 가능성도 역시 주목된다고 볼 수 있다.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하여 주요 일간지와 TV 메시지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별 단서도 미디어 메시지의 낙인형과 반 낙인형 분포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281.566, p < .001$, <표 6> 참조). 남성 또는 여성 인물 사례가 포함된 심혈관계 질환 메시지는 전체의 51.7%(453건)였다. 그 중에서 남성만 다룬 메시지는 22.3%(196건)였던 반면, 여성만 다룬 메시지는 5.9%(52건)에 불과했다. 남녀 모두를 다룬 메시지의 비율은 23.4%(205건)였다. 어떤 경우든 낙인형이 반 낙인형보다 더 많이 나타나기는 했으나, 전체 메시지에서 여성만 거론되었을 때의 낙인형(3.1%)과 반 낙인형(1.3%)의 비율 차이보다 남성만 거론되었을 때의 낙인형(10.4%)과 반 낙인형(3.6%)의 비율 차이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부분(성별×메시지 유형)에 대한 카이검증은 유의미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남성을 거론하는 메시지가 더 많다는 결론만 내릴

표 6. 사례 인물 성별 심혈관계 질환 메시지 유형의 차이

메시지	인물 성별				계 (%)
	단독		혼합 (%)	거론되지 않음 (%)	
	남성 (%)	여성 (%)			
낙인형	91 (10.4%)	27 (3.1%)	119 (13.6%)	94 (10.7%)	331 (37.7%)
반 낙인형	32 (3.6%)	11 (1.3%)	55 (6.3%)	74 (8.4%)	172 (19.6%)
가치 배제형	23 (2.6%)	6 (0.7%)	23 (2.6%)	242 (27.6%)	294 (33.5%)
혼합형	50 (5.7%)	8 (0.9%)	8 (0.9%)	14 (1.6%)	80 (9.1%)
전체	196 (22.3%)	52 (5.9%)	205 (23.4%)	424 (48.3%)	877 (100%)
χ^2 (df=9)	281.566 (p < .001)				

수 있겠다.

전체 메시지에서 인물의 성별이 거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치 배제형이 242건(27.6%)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낙인형이 94건(10.7%)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녀 모두가 거론된 메시지에서는 낙인형이 119건(13.6%)로서 가장 높아, 인물의 성별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경우에 낙인형이 전달될 확률이 더 높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심혈관계 질환에 관한 한 여성보다 남성이 언급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낙인의 피해자로 노출될 가능성도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4) 예비연구의 결론

본 예비 연구에서는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낙인형, 반 낙인형 메시지의 분포를 TV, 신문 대상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낙인형 메시지가 대상자의 연령층, 및 성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낙인형 메시지가 전체의 3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V와 신문을 비교해 보았을 때, TV는 낙인형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18.5%에 불과한 신문보다 월등히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신문의 경우 비교적 가치중립적 메시지의 비율이 높은 것은, 방송에 비해 덜 자극적인 신문의 저널리즘적 특성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TV는 일반적으로 사건의 요약을 통해 프로그램 초기에 시청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다양성과 인간적 흥미를 가진 보도를 통해 관심을 유지시키는 경향(McQuail, 2005)을 가진다. 더욱이 보도가 중심인 주요 일간지와 달리, TV의 장르는 보다 다양하게 구분된다. 미디어 자체에 있어서 시각적, 청각적 단서가 더 풍부하다는 특성 또한 갖는다.

그중에서도 TV 드라마는 특정 대상에 대한 시청자의 현실 인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김재휘·서종희, 2006). 사람들은 이야기를 접하면서 그 속에 인지적, 감정적으로 빠져드는 현상으로 인해 반박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나 동기를 잃는다(Dal Cin, et al., 2003). 내러

티브를 설득적 시도로서의 의도라 생각하기 이전에, 이야기로서의 오락적인 요소에 먼저 빠져들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스토리에 대한 긴장감이나 기대는 이야기 내의 메시지에 대해 세밀히 숙고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김소윤·이현우, 2007). 결국, 본 연구의 주제는 내러티브적 특성이 두드러진 TV 드라마와 관련하여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TV나 신문 할 것 없이, 심혈관계 질환 관련 메시지의 과반수가 낙인형의 하위 범주로서 ‘위험’과 ‘책임’에 해당했다는 결과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 키워드는 건강 예방적 차원에서의 직·간접적인 ‘공포/위협 소구(Fear appeal)’와 관련하여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질환자가 된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단서가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연관하여 미디어의 건강 메시지는 때때로 “희생자 비난”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Bryant & Thompson, 2002). 한국 주요 미디어에서의 심혈관계 질환 관련 메시지에 관해서도 이와 유사한 지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요 매스미디어에서 전달하는 심혈관계 질환 관련 정보가 질환자나 관련 인물들로 하여금 부당한 처우를 받게 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그에 대한 조치 역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낙인형의 하위 범주로서 두드러진 ‘위험’과 ‘책임’ 형태와 관련된만한 메시지의 구성을 점검하는 것도 미디어 종사자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조율 노력 중 하나다. 특히, 특정 심혈관계 질환자의 드라마틱한 정보를 메시지에 포함시킬 때 이를 심혈관계 질환자의 일반적인 사례인 것처럼 구성하여 전달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전체 미디어 메시지 빈도에서 젊은 연령층보다는 노년층, 여성보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심혈관 질환 메시지가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그 사회적 범주들이 메시지에서 수적으로 자주 거론되는 만큼, 그 범주에 있는 만성질환자들이 낙인효과의 위험성에 노출될 현실적 가능성 또한 비교적 높아진다는 수준에서의 경각심을 일깨운다고 할 수 있다. 본 예비연구에서는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만성질환 관

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서도 미디어(특히 TV)가 낙인형 메시지 편향이 나타나므로 낙인효과에 취약할 수 있는 사회적 범주를 다룰 때 특히 주의가 요망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TV 드라마에서의 심혈관계 질환 관련 인물을 남성, 노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3.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TV 드라마에서의 심혈관계 질환 관련 메시지가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낙인효과에 초점을 맞췄다. 그 효과의 매커니즘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악인 캐릭터 단서, 부정적 감정,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추가적으로 이뤄졌다. 더불어, 미디어 메시지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유경향으로서의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1) TV 드라마 메시지 효과로서의 부정적 감정

(1) 낙인형 메시지와 부정적 감정

엔터테인먼트 연구에서 내러티브 소구(narrative appeal)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는, 드라마 수용 처리 모델을 제공하는 정서적 성향 이론(Affective Disposition Theory)을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다(Zillmann, 1996). 이 관점에서 보자면 소구는, 시청자들이 캐릭터에 대해 지니고 있는 정서적 성향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드라마는 시청자에게 특정 캐릭터에 대한 공감과 감정 이입을 불러일으켜 의사(擬似) 사회적 상호작용(para social interaction) 즉, TV 등장인물과 시청자들의 가상 관계(pseudo relationship)의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공감(Sympathy)에는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가 포함된다. 감정이입(Emphathy)은 그 상황에서 발생된 타인의 감정을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스스로의 경험처

림 느끼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이다(강두선·장기훈, 2011). 공감과 감정이입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은 극중에서 묘사된 인물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시청자들은 극중 인물의 특성(예: 똑똑한, 성공한, 매력적인, 폭력적인, 웃기는 캐릭터 등)을 평가하여 그들의 행동을 예상하고 그들에 대한 인상을 키워나간다. 또한 해당 인물에 대해 시청자가 갖고 있는 유사성, 동일시, 동일화 갈망 정도가 클수록 그 대상과의 준 사회적 상호작용은 긍정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Hoffner & Buchanan, 2005). 특히, 캐릭터가 호감 형 일수록 긍정적인 의사 상호작용이 높게 나타난다(Tian & Hoffner, 2010). 비호감 캐릭터는 가상의 관계에서 일종의 외집단 구성원처럼, 호감캐릭터는 내집단 구성원처럼 대해지기 쉽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체장애가 있는 개인들은 장애가 없는 개인들의 경우보다 호감을 주지 못하는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가졌다고 지각되는 경향이 있다(Tyrrell, et al., 2010). 더욱이, 예비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낙인의 개념·차원·기능 등을 고려해 볼 때, 낙인 단서가 부여된 인물로서의 드라마 캐릭터는 호감 캐릭터라기보다는 외집단에 속하는 비 호감 캐릭터로 수용되기 쉬울 것이다. 의사 상호작용은 인지적·감성적·행동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진다(Rubin & Perse, 1987). 결국 드라마에서 낙인화된 인물은 반 낙인화된 인물의 경우에 비해 시청자들로부터 의사 상호작용에서의 부정적인 감정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2) 악인 캐릭터 단서와 부정적 감정

초기 정서적 성향 이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재미와 반감에 대한 도덕제재 이론(moral-sanction theory of delight and repugnance)이다(오미영, 2005). 시청자들의 의향은 캐릭터 도덕성에 대한 시청자의 지각, 캐릭터를 통해 경험한 결과의 영향을 받게 된다. 특정 캐릭터를 도덕적이지 않은 악당(villains, 예: 난폭한, 폭력적인, 반사회적

캐릭터)이라고 여기면 시청자는 그 캐릭터에 대해 거리감을 갖게 된다(Konijn & Hoorn, 2005). 즉, 극중 캐릭터에 대해 갖는 호감(감성적 의향)도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사전적 의미에서 도덕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행동 규범이다. 등장인물을 관찰한 다음 그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적으로 생각하여 그에 따라 반응함으로써 드라마의 인물에게 반감을 느끼기도 한다(나은영, 2010).

그런데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인과응보·자업자득·사필귀정식의 도덕적 평가가 이뤄지는 스토리에 ‘질병’이 소재로 편입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극중 인물이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비도덕적 캐릭터로 그려졌을 경우, 질환과 관련된 낙인 단서(특히 ‘책임’)와 악인단서가 상호작용하여 낙인 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했다. 드라마에서의 특정 장애 인물이 특히 악한 인물로 묘사된다면 낙인으로부터 촉발되는 부정적 감정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연관하여, 시청자들이 캐릭터에 대해 처음 가진 정서적 의향은 이후 캐릭터의 도덕적 평가를 압도한다는 주장들이 있다. 이미 일종의 내 집단 구성원으로 수용된 캐릭터들에 대해서는 스키마에 따라 그들이 좋은, 바람직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Raney, 2004). 이런 관점에서는, 시청자들에게 이미 그 대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드라마 캐릭터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반 낙인 단서가 부여되더라도 그 효과가 반 낙인 단서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간이 갈수록 시청자의 의향은 방향성이나 정도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정서적 성향 이론과 관련된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변성에 대한 논의를 드라마 캐릭터와 연관시켜 전개한다. 예를 들어, 도덕적으로 애매한(ambiguous) 캐릭터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잘 드러난다(Eden, et al., 2011). 도덕적으로 애매한 캐릭터란 극이 전개되는 가운데 도덕적인 인물에서 비도덕적으로, 혹은

그 반대로 변화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악인 캐릭터 단서가 영상 초반에만 한정적으로 부여되고, 반 낙인 단서는 지속적으로 제시될 때 반 낙인 단서에 의해 기존에 악인캐릭터가 시청자의 감정에 대해 미치는 주 효과는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결국, 시청자의 부정적 감정에 대한 악인 캐릭터 단서의 효과는 낙인 유형과 경우와는 달리, 어디까지나 보조적 장치 수준에만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2) TV 드라마 메시지 효과로서의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은 상호작용의 어떤 영역에 대해 사람들이 접근을 허용하는 정도(Westie, 1959), 어떤 대상에 대한 우호적·비우호적 태도(Martin, 1963), 다양한 사회집단 간의 상대적 친밀, 거부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Sherif, 1973), 서로에 대해 경험하는 이해와 감정의 정도(Bogardus, 1933) 등으로 정의된다. 본래는 인종 사회로 구성된 미국사회의 사회적 쟁점이었던 인종 차별 문제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기타 소수집단 관련 낙인 효과 검증에도 두루 쓰인다(Willits, et al., 2010).

한편, 몇몇 학자들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었던 ‘감정’ 요인에 대해 주목하면서, ‘감정’이 인지적 요인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변수라고 설명한바 있다. 감정은 ‘편견’의 감정적 구성요소이다. 편견을 가진 어떤 사람이 어떤 집단의 성원을 대할 때 또는 단순히 그것을 생각할 때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느낌 또는 정서를 말한다(이광자·엄신자·전신현, 2003)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로서의 사회적 거리감이 비록 해당 집단에 따라 상이한 원인들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 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negative emotions, feelings)을 매개로 표출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즉, 이 감정적 요인은 집단 간 인지와 집단 간 행위를 매개하는 변수로 평가받는다.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은 그 사람이 속한 집

단 특성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 그 집단에 대한 감정적 호의성 정도에 의 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김상학, 2004).

물론 드라마 속 인물 개인에 대한 의사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 집 단에 대한 감정은 개념상 같지 않다. 그러나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성 급한 일반화의 오류(fallacy of hasty generalization), 어떤 개인의 독특 성을 하나의 일반적인 범주의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실재는 상관이 없는 것들 간에 관계가 있다고 믿는 상관착각(fallacy of illusory correlation) 속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감정을 그가 속한 '집단'의 불특정 인물에 대 한 감정으로 치환시킬 만큼 막강하다.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SCT)에서는 학습의 상당부분이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 루진다고 주장한다(Zillman, 2002), 이를 대리학습(vicarious learning) 이라고 하는데, 특정행위가 행위자에게 긍정적 결과를 얻게 하는 데 기 여한 것으로 미디어가 묘사한다면 수용자들은 그 특정행위의 기능적 가 치를 학습하게 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상황에서 그 특정행위를 자신들 의 행동으로 채택하려는 동기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이 특정 대 상에 대해 잘 발달된 태도를 갖고 있다면 그 대상에 단순히 노출되기만 하더라도 그 대상에 대한 태도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어 그 대상에 대한 지각 및 해석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최진명 2009, 재인 용). 유사한 맥락에서, 근래에는 의사 사회적 상호작용이 미디어 효과의 선행변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속성이라고 간주된다(Zillman, 2002). 특정 등장인물과 시청자들의 의사 사회적 상호작용이 우호적일 수록 그 프로그램이 대변한 사회현실에 대해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으 로 동감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김정기 2005 재인용).

실제, 질환이나 장애인 집단에 대한 태도가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SCT 차원에서 축적되어 왔다(Latner, et al., 2007) 코리건과 클라인린(Corrigan & Kleinlein, 2005)도 질환자에 대한 미디어 메시지 단서가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행 동적 반응성을 얼마나 야기하는지를 보았다. 최근 국내에서는 장애인 (최이정, 2009)이나 신종플루(김여라, 2010)에 대한 연구를 통해, 관련

미디어의 묘사가 결과적으로 실제적 집단에 대한 반응에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검증했다. 결국 낙인형 메시지, 특정 미디어 메시지에 노출됨으로써 야기되는 메시지 속 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 실제 질환자 집단에 대한 태도로서의 사회적 거리감이 개념적으로 인과 관계에 놓일 수 있다.

3) 이용자의 선유경향으로서 부정적 고정관념(stereotype)

일반적으로, 차별은 크게 세 가지 차원, 즉 인지적 측면의 ‘고정관념’, 정서적 측면의 ‘편견’, 행동적 측면의 ‘차별행동’을 의미한다. 즉, 소수자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라 함은 태도 대상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김상학, 2004). 이 고정관념은 ‘특정집단의 모든 성원들은 어떤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과장되게 일반화시켜 믿는 신념들의 집합’으로서, 이것이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동반할 때 ‘편견’이라고 한다(박수미·정기선, 2006 재인용). 사람들이 어떠한 집단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고정관념과 편견은 지각자의 정보처리 과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탐지되어 그의 자기 개념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편견은 한 사람이 어떤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왜곡, 비하시키도록 한다. 나아가 일상생활의 중요한 인간관계의 차원에서 소외시키도록 만들기도 한다(김혜숙, 2002). 특히, 상관착각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신념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Heatherton, et al., 2000; Scott & Alison, 2004),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매스미디어 메시지가 시청자에게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TV 드라마 낙인 단서(낙인형-반 낙인형), 악인 캐릭터 단서(없음-있음)별 시청자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가설 1-1: 낙인형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이 가진 '극중 장애 인물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반 낙인형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의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날 것이다.
- 가설 1-2: 메시지의 낙인 단서(낙인형-반 낙인형)가 극중 장애 인물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미치는 효과는 악인 캐릭터 단서(없음-있음)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 가설 1-3: 낙인형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이 가진 '만성질환 신체장애인 집단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이 반 낙인형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의 경우에 비해 낮게 나타날 것이다.
- 연구문제 2: TV 드라마 낙인 단서, 극중 만성질환 장애 인물에 대한 부정적 감정, 만성질환 신체장애인 집단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 간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 가설 2: TV 드라마 낙인 단서와 만성질환 신체장애인 집단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 간 관계에서 장애 인물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매개적 역할을 할 것이다.

4. 본 연구의 방법

1) 실험의 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2(낙인형-반 낙인형) × 2(악인 캐릭터 단서 없음-있음) 집단 간 설계(Between Subjects Factorial Design)로 이뤄졌다. 실험 자극물이 영상이기 때문에 편의상 응답자가 컴퓨터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웹용 설문지를 설계했다. 2010년 11월, 12월에 걸쳐 시행된 그 조사의 응답자들은 서울에 거주하고, 학업 및 직업상 건강/보건/의료 분야와 무

관한 만 18세 이상 남녀 학생, 회사원들로 구성되었다(총 465명). 이 피험자 집단에 4종류의 실험 영상이 비교적 균등하게 무작위 배포될 수 있도록, 응답자가 임의로 웹용 설문유형을 선택 가능케 조치됐다. 설문지 첫 장에는 응답자들이 만성질환 장애인 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 고정관념을 알아보는 문항이 먼저 제시되고, 이어 실험자극물로 뇌졸중 장애인에 대한 드라마 편집 영상이 재생되도록 설정됐다. 자극물이 끝까지 재생된 다음에는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했는지를 묻는 문항이 나오는데 그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참가자들, 또한 조사 이전 그 드라마 영상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3회 이상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의 조사는 종료된다.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극중 만성질환 장애인물에 대한 부정적 감정, 일상의 만성질환 신체장애인 집단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 측정 문항에 답하도록 했다. 이어 자신 및 주변인들의 병력 등에 대한 문항, 인구통계학적 문항 등이 제시됐다. 입력된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사전에 해당 드라마(2007년 작)를 3회 이상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제거된 자료(N=436)에서, 자신이나 가족구성원에게 과거나 현재 심혈관계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를 제외시켜 최종 자료(N=350)가 마련됐다.

2) 주요 변인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실험자극물: TV 드라마 메시지 낙인 단서와 악인 캐릭터 단서

실험자극물로 제시될 드라마 영상으로 낙인 단서(낙인형- 반 낙인형)과 악인 캐릭터 단서(없음- 있음)가 조작됐다. 이 드라마 영상은 뇌졸중 질환으로 인해 장애인이 된 인물에 대한 것이다. 오늘날 질병으로 경계 만들기에 있어서는 ‘질환’과 ‘장애’라는 개념을 구분하는 기준이 강조되지 않더라도 장애는 질환의 극적인 형태인 만큼(김창엽, 2003), 이러한 인물 설정이 방법상 유리하다고 보았다. 어느 유형에서나 동일한 주요 인물들(장애 인물, 장애 인물의 가족 구성원들, 기타 비 혈연관계의 인물

들)이 등장하고, 질환자의 병세와 주변 인물들과의 반응이 초기 상황(질환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장애인이 됨)까지는 공통적으로 전개된다. 이후부터는 질환자 반응에 대한 문제정의, 주변 인물들과의 상호작용, 관계에 있어서 인물들 간 나타나는 표현(대사, 표정, 동작)을 다르게 조작했다. 이를 위해, 2007년 KBS에서 방송되었던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드라마 영상 원본이 편집되었다.

낙인형은 “비관”, “위험”, “책임”, “사회적 배제” 단서가 두드러지게 표현된 것이고, 반 낙인형은 “사회적 수용”, “낙관”, “가능성” 단서가 그러한 것이다(〈표 7〉 참조). 악인 캐릭터 단서(없음- 있음)는 질환자가 장애 인물이 되어 의식을 찾기 이전까지 질환자나 그 가족들이 비도덕적인 수준에서 난폭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상황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것이다. 시청자들은 드라마에서의 반사회적 행동을 비도덕적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Tamborini, et al., 2010),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ur)에는 위법적이지 않을 수 있는 위해행위(예: 욕설, 사소한 폭력, 위협행동 등)가 포함되기 때문이다(Millie, et al., 2005).

이러한 2분 20초가량 분량의 악인 캐릭터 단서들이 기존 낙인유형 메시지에 덧붙여져, 악인단서가 포함되지 않은 메시지(1분 43초, 14씬)보다 포함된 메시지(4분 4초, 20씬)의 러닝타임이 더 길게 나타났다. 그 조합 속에서, B형은 ‘인과응보’, D형은 ‘개과천선’의 스토리로 나타난다. 한편, 본 실험 메시지는 평균 드라마 방영시간에 비하면 짧은 분량이지만,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영상의 길이(length)가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예컨대, 15초 영상이 30초 영상의 80~90%까지의 회상을 성취할 수 있다(Mord & Gilson, 1985).

(2) 극중 만성질환 신체장애 인물에 대한 부정적 감정: 3문항

TV 드라마 시청자가 극중 만성질환 신체 장애인에 대해 의사 사회적 상호작용 차원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이다. 김상학(2004)의 연구 중

표 7. 실험영상물의 구성

단 서	스크립트 사례	
4가지 유형 공통	남(장애 인물), 으억...(뇌졸중으로 쓰러짐)	
	여1. "미도국장 사장이요! 뇌졸중으로 쓰러졌대요!"	
	(장애 인물이 의식이 돌아온 듯 손을 움직인다)	
낙인	위험	여2. "뇌졸중인가 뭐신가. 일단 한번 자빠져버리면 영 일어나기 힘들다 그카던데에." "한번 자빠져뿌면 한방에 팍 ~"
		남1. "의사 말을 들어보니까 수술을 하더라도 못 깨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남2. "하긴 중풍으로 한번 쓰러졌다 하면 깨어나도 반신불수되기 십상이지."
		남(처남). "우리 극장이고 집이고 다 남기고 ~ 완전 빗잔치 하게 생겼더니까, 쫓."
	책임	여3. "결국 쓰러지셨어. 가진 걸 다 잃게 되셨고..."
		남(아들). "(누워 있는 장애 인물에게) 그러게 왜 진작에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조금만 더 일찍 누우치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요."
사회적배제	여(딸). "후후 ~ 아빠." 여3. "나한테 이런다고 사장님 나아지시는 거 아니야."	
	남(아들). "(누워 있는 장애 인물에게) 차라리 깨어나지 않으시는 게 편하실 것 같네요."	
비관	남(장애 인물). (떠 먹여주는 숟가락이 입으로 다가오자 고개를 세차게 돌린다.)	
반낙인	가능성	남(장애 인물). "(약간 어눌하지만 밝은 표정으로) 밥 먹어 ~ 내가 사 ~"
		남(장애 인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깎뚜기를 여5의 숟가락 위에 다정하게 올려주며) 먹어 ~
	사회적수용/지지	여3.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그분들 불행에 자유로울 수 있겠어."
		여4. "(다정한 목소리로) 깨어나게 해달라고 빌라고요."
낙관	부부. "하 ~ (미소)"	
악인 캐릭터	남(장애 인물). "(한숨) 흐... (표독스럽게 고함치며) 재수 없는 소리하지 마!"	
	여(딸). "한 대 패려다가 참았어"	
	여(부인). "머리채를 그냥 확 뺏겨 버리지!"	

총 3문항(“피하고 싶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 “함께 있는 게 어색할 것 같다”)을 7점 척도에서 5점 척도로 변경했고, 산술 평균화된 지수를 분

석에 활용했다(Cronbach's $\alpha = .844$, $M = 3.01$, $SD = .983$).

(3) 일상의 만성질환 신체장애인 집단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 4문항

개인이 만성질환 신체장애인 집단의 불특정 인물들에 대해 주관적으로 가지는 행동적 요소로서의 사회적 친밀감 태도이다(이 사회적 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해 차용한 척도들의 명칭은 본래 '사회적 거리감'이다. 그 척도들의 문장은 부정형으로 이뤄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감이 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면서 자료를 역 채점을 하는 대신에, 자료를 그대로 쓰고 명칭을 '사회적 친밀감'으로 바꿔 사용했다).

김상학(2004)의 연구에서 우선 3문항을 차용했다. 이 문항은 사회적 거리감 분석에 널리 쓰였던 측정 문항들(Bogardus, 1933; Westie, 1959)을 응용하되, '사회적 관계 맺음을 허용하는 정도'라는 기준을 적용해 재구성한 것이다("나는 내가 속한 동호회에 ___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___과 이웃하여 산다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___이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는 동료가 된다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한편, 송관재 · 김범준 · 홍영호 · 이훈구(1997)의 사회적 거리감 연구에서는 웨스티의 거리감 측정문항을 번안해 사용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연구에서 쓰인 '대인간 신체적 거리감' 척도 중 평균치가 가장 낮게 제시된 1문항("나는 ___와 진정한 개인적 친구로 지내고자 한다")을 수정해 첨가시켰다("나는 ___과 진정한 개인적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이 4문항에 대한 산술 평균화된 지수로 분석을 시행했다(Cronbach's $\alpha = .919$, $M = 3.44$, $SD = .948$).

(4) (실험 전) 만성질환 장애인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6문항

실험 자극물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조사 응답자가 평소 만성질환 장애인에 대해 갖는 부정적 고정관념(편견의 인지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김상학(2004)의 연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문항 3가지("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의존적이다", "열등감이

강하다”), 박수미·정기선(2006)의 연구에서 문항 3가지(“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데 문제가 있다”, “직장생활에 적합하지 않다”, “일처리 속도가 떨어진다”)를 차용했다. 응답자가 ‘만성질환’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모르는 대로 응답할 것을 유도했다. 한편 공 변량 분석에서 공 변인으로 투입하기 위하여, 6문항의 산술 평균화된 지수($M=2.92$, Cronbach’s $\alpha = .863$)를 산출했다.

5. 본 연구의 결과

1) 기본 가정 검토

(1) 조작 점검

본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학생/대학원생들 총 40명을 대상으로 실험처치 조작 점검을 시행했다. 제시된 메시지의 ‘낙인 단서’, ‘악인 캐릭터 단서’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총 8문항(5점 척도)에 대한 측정으로 집단 별 평균비교를 실시했다(낙인 단서 5문항: “극 중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인의 상태는 결과적으로 자기가 자초한 것으로 그려진다(책임)”, “~장애인이 되면서 당사자나 그 가족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그려진다(위험)”, “~장애인이 되면서 당사자나 그 가족이 슬픔/분노/우울함 등 부정적 정서를 겪는 것으로 그려진다(비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은 기타 인물들로부터 사회적 수용/지지를 받는 것으로 그려진다(사회적 배제)(역채점)”, “~장애인 일상에 시간이 갈수록 긍정적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그려진다(역채점); 악인 캐릭터 단서 3 문항: “극 중에서 질환자는 발병 전에 평소 악인 캐릭터였을 것이다”, “~질환자의 가족(부인, 처남, 딸 등)은 발병 전에 악인 캐릭터였을 것이다”, “~질환자와 가족을 제외한 기타 인물들 간에는 발병 전부터 어떤 심각한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그 결과, 집단의 차이가 각각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낙인 단서: $M=3.76$,

SD = .66, 반 낙인 단서: $M = 2.19$, $SD = .61$, $t = 7.429$, $p < .001$; 악인 캐릭터 단서 없음 $M = 2.30$, $SD = .46$, 악인 캐릭터 단서 있음: $M = 3.99$, $SD = .39$, $t = -11.803$, $p < .001$).

한편, 각 유형별 시나리오를 받은 4집단 간 ‘영상의 질’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총 3문항(5점 척도)으로 집단 별 평균 비교를 실시했다(“극중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인/가족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 수 있다”, “~장애인과 다른 등장인물들 간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장애인의 가족이 다른 등장인물들과 어떤 관계인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다”, Cronbach’s $\alpha = .856$). 그 결과, 영상의 논리적 측면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시청한 것으로 나타나 설렘 처치 조작화가 잘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었다($F(3,36) = 2.537$, $p > .05$).

(2) 무선모형의 검증

최종 자료($N = 350$)에는 남성이 55.1%(193명), 여성이 44.9%(157명), 연령(만18세~58세)의 평균은 만 29.80세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해 고르게 분포되었는지를 확인키 위해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했다. 또한, 실험조건 간에 부정적 고정관념(선유경향 변인) 점수의 차이가 없는지를 변량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그 결과 각각의 경우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피험자의 사전 동질성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

(3) 공변인 가정의 검증

매개변인과 준거변인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모형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매개모형 분석은 편향된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공 변인인 부정적 고정관념은 부정적 감정($r = .305$, $p < .001$), 사회적 친밀감($r = -.215$, $p < .0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단, 공 변량 분석이 실시되려면 공 변인과 집단 내 회귀선의 기울기가 동일하다는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분석결과, 부정적 고정관념과 부정적

감정의 회귀선이 모든 집단 내에서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친밀감과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 낙인 단서와 악인 캐릭터 단서의 영향력

낙인 단서(낙인형-반 낙인형)와 악인 캐릭터 단서(없음-있음)가 부정적 감정, 사회적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각각 분석하기 위해, 부정적 고정관념을 공 변인으로 한 2×2 공분산분석(ANCOVA)을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1) 부정적 감정에 대한 영향력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극중 장애 인물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평균치는 B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 이 집단은 기타 모든 집단과 평균치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제시됐다. 부정적 감정이 가장 낮게 나타난 집단은 D 집단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메시지의 낙인 단서(낙인형-반 낙인형)에 따라 TV 드라마 속 장애 인물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다르게 나타났다($F(1,345) = 91.304, p < .001$). 낙인형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이 반 낙인형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에 비해 장애 인물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가설 1-1> 채택).

또한 낙인 단서가 TV 드라마 속 장애 인물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미치는 효과는 악인 캐릭터 단서에 따라 조절됐다. 낙인형 메시지에 악인 캐릭터 단서가 부여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정적 감정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반 낙인형 메시지에서 해당 단서가 부여되면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정적 감정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1,345) = 19.683, p < .001$, <가설 1-2> 채택). 단, 메시지 유형 집단에 대한 사후 검증 결과에서는 A 집단과 B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제시된 것과 달리, C 집단과 D 집단 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악인 캐릭터 단서의 주 효과도 유의하지 않게 제시됐다.

표 8. 메시지 유형별 극중 장애인물에 대한 부정적 감정

측정변인		<i>M</i>	<i>SD</i>	<i>N</i>	
A	낙인형	악인 캐릭터 단서 X	3.25	.899	95
B		악인 캐릭터 단서 O	3.61	.851	93
C	반낙인형	악인 캐릭터 단서 X	2.72	.783	72
D		악인 캐릭터 단서 O	2.37	.877	90
전체			3.01	.983	350
		자유도	<i>F</i>	부분 에타제곱	차이집단
수정 모형		4	40,968***	.322	<i>A^{bcd} B^{acd} C^{ab} D^{ab}</i>
고정관념		1	39,393***	.102	
낙인 단서		1	91,304***	.209	
악인 캐릭터 단서		1	.141	.000	
낙인 단서 × 악인 캐릭터 단서		1	19,683***	.054	
오차		345			

주. 평균치에 다른 집단 표시 위첨자가 부여된 경우는 해당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함을 의미함.

*** $p < .001$

(2) 사회적 친밀감에 대한 영향력

사회적 친밀감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앞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공 변량 분석을 실시했다(〈표 9〉 참조). 한편, 사회적 친밀감에 대한 악인 캐릭터 단서의 효과 자체는 증명할 사안이 아니지만, 앞의 결과에서 낙인 단서와 악인 캐릭터 단서 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 변인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부정적 감정에 대한 영향력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독립변인의 유의한 주 효과는 오직 낙인 단서의 경우에서만 나타나고($F(1,345) = 39.092, p < .001$), 악인 캐릭터 단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사회적 친밀감이 가장 낮게 나타난 집단은 A 집단이었는데($M = 3.145, SD = .809, N = 905$), 평균치는 B 집단의 경우와 거의 다름없었다($M =$

표 9. 메시지 유형별 극중 장애인 인물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

측정변인			<i>M</i>	<i>SD</i>	<i>N</i>	
A	낙인형	악인 캐릭터 단서 X	3.15	.809	95	
B		악인 캐릭터 단서 O	3.15	.999	93	
C	반낙인형	악인 캐릭터 단서 X	3.65	.816	72	
D		악인 캐릭터 단서 O	3.89	.923	90	
전체			3.44	.948	350	
			자유도	<i>F</i>	부분 에타제곱	차이집단
수정 모형			4	26,593***	.236	<i>A^{cd}B^{cd}C^{ab}D^{ab}</i>
고정관념			1	52,431***	.132	
낙인 단서			1	39,092***	.102	
악인 캐릭터 단서			1	1,012	.003	
낙인 단서 × 악인 캐릭터 단서			1	3,238	.009	
오차			345			

주. 평균치에 다른 집단 표시 위치자가 부여된 경우는 해당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함을 의미함.

*** $p < .001$

3.151, $SD = .999$, $N = 93$). 사후 검증 결과, 이들 집단은 서로를 제외한 모든 집단과 평균치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제시됐다 (<가설 1-3> 채택). 그 밖에, 낙인 단서와 악인 캐릭터 단서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예상대로 유의하지 않게 제시됐다.

3) 낙인 단서 사회적 친밀감 간 관계에서의 부정적 감정의 매개효과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법(Baron & Kenny, 1986)을 사용했다. 우선, A와 C의 관계에서 B의 매개효과가 입증되려면, $A \rightarrow B$ 가 유의미하고, $A \rightarrow C$ 도 유의미하되, $A, B \rightarrow C$ 로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A의 설명량이 유의미했던 수준에서 그렇지 못한 수준으로 감소되고, B의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야 한다.

즉, 이런 경우를 A와 C의 관계가 B에 의해 완전 매개됐다고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감정에 대하여 낙인 단서와 악인 캐릭터 단서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앞에서의 공 변량분석 결과 시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낙인 단서와 악인 캐릭터 단서의 교호 항을 본 회귀분석의 독립변인에 포함시켰다. 분석 전에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과정을 거침으로써 낙인 단서, 상호 작용 항 간의 다중공선성의 위험을 방지했다.

결과에 대한 요약이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첫 단계 결과(수정된 $R^2 = .240$, $F = 56.119$, $p < .001$), 낙인 단서($\beta = -.459$, $t = -9.838$, $p < .001$)와 낙인 단서 및 악인 캐릭터 단서 교호변인($\beta = -.179$, $t = -.179$, $p < .001$)이 부정적 감정($df = 2, 347$)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다음 단계 결과(수정된 $R^2 = .111$, $F = 22.703$, $p < .001$), 사회적 친밀감($df = 2, 347$)에 대한 영향은 낙인 단서의 경우에만 유의했다($\beta = .334$, $t = 6.612$, $p < .001$). 마지막으로, 사회적 친밀감($df = 3, 346$)에 대하여 독립변인들을 부정적 감정과 동시에 투입하자, 낙인 단서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와 달리, 부정적 감정은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beta = -.525$, $t = -10.312$, $p < .001$). 이 모형의 설명력은 31.8%로 나타났다(수정된 $R^2 = .318$, $\Delta R^2 = .208$, $F = 55.179$, $p < .001$). 따라서 부정적 감정은 낙인 단서와 사회적 친밀감 간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검증되었다(가설 2 채택).

표 10. 낙인 단서와 사회적 친밀감 간 부정적 감정의 매개효과

예언변인	① $X \rightarrow M$	② $X \rightarrow Y$	③ $X + M \rightarrow Y$
낙인 단서	-.459***	.334***	.093(n.s.)
낙인 단서 × 악인 캐릭터 단서	-.179***	.063(n.s.)	-.031(n.s.)
부정 감정			-.525***

주. *** $p < .001$

6. 본 연구의 결론

본 연구에서는 TV 드라마 메시지에서의 낙인 단서, 악인 캐릭터 단서가 극중 인물에 대한 부정적 감정, 사회적 친밀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정적 감정은 관련 장애인 집단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때에는 보다 순수한 처치효과를 파악하고자, 평소 장애인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공 변인으로 투입했다.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이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첫째, TV 드라마에서 만성질환 장애인을 소재로 한 반 낙인형 단서 메시지에 비해 낙인형 단서 메시지가 관련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정적인 영향, 사회적 친밀감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쳤다. 극중 인물에 대한 긍정적 묘사가 의사 사회적 상호작용 차원에서의 감정을 유발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는 물론이고, 미디어 단서가 실제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내용과도 부합되고 있다. 둘째, 낙인 단서와 악인 캐릭터 단서가 큰 ‘인과응보 조합’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에서 극중 인물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가장 높았다. 장애 인물에 대한 부정적 감정, 관련 집단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에 있어서 미디어의 낙인 단서 수준이 항상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악인 단서 변인과 상호작용하여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악인단서가 시청자에게는 광의의 개념에서 낙인 단서의 일종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극이 전개되면서 해당 인물의 캐릭터가 도덕적으로 애매해졌을 때 대상에 대한 의향이 처음과 달리 변할 수 있다는 기존 논의들을 재확인시켜 준다. 셋째, 낙인유형과 관련 집단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 간 관계에서, 극중 장애 인물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완전 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선행연구에서의 논의대로 의사 상호작용과 실제 현실 관계 간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종합해 보면, 미디어 메시지 효과 변인인 낙인 단서의 경우는 일반 비심혈관계 질환 집단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그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 감정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 감정은 낙인 단서와 악인 캐릭터 단서와의 조합에 따라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은 내집단의 구성원같이 동일시하고 공감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낙인을 찍기 쉽다는 낙인 이론의 내용과 일치하는 바이다. 나아가, 국내 학계에서 비교적 도외시되었던 만성 심혈관계 질환 관련 낙인 효과에 대한 규명을 처음 시도함으로써,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화합, 포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여지를 확대시켰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연관하여, TV 드라마 콘텐츠에서 낙인 효과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매스미디어 콘텐츠 생산자들의 노력이 비 저널리즘 장르의 콘텐츠와 연관해서도 기울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미디어 종사자들이 질환에 대한 메시지 구성 시 부정적인 기술을 무조건적으로 지양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험이나 책임을 기술하는 것은 낙인형 메시지의 속성일 수도 있지만, 사실적인 문제라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결과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낙인 효과의 가능성을 특히 경계하고, 신중한 조율을 하고자 하는 동기는 보다 폭넓게, 꾸준히 부여되어야 한다. 이는 미디어 이용자들의 헬스 리터러시(Health literacy) 교육 또한, 건강 관련 보도기사에만 국한해 기획될 게 아니라는 함의와도 더불어 맞닿아 있다.

연구의 제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오염 변수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다. 예컨대, 본 조사에서는 자신 및 주변인의 병력에 관한 질문이 실험 메시지 노출 이후에 제시되었다. 만성질환자가 낙인형 메시지나 악인 캐릭터 단서 메시지에 노출될 경우, 솔직히 응답하기를 꺼릴 수 있다. 둘째, 러닝 타임이 2분 내지 5분 이내인 1회 실험 자극물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는 방영시간이 1시간에 가깝고 몇 달 내지 몇 년 동안 장기간 편성되는 실제 TV드라마 프로그램이 가진 효과를 분명하게 반영해낼 수 없다. 셋째, 뇌졸중 질환 장애 인물 메시지를 중심으로 실험 연구가 시행되었는데 이를 통한 결과를 심혈관계 질환, 나아가 만성질환 장애인 관련 메시지의 경우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앞으로, 그 범주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질환 간의 비교 연

구를 시행한다면 낙인 효과를 야기하는 조건, 실태에 대한 고찰이 보다 심도 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길원 (2006.9.20). 심장 건강 첫걸음, '백살'부터 빼라. 『연합뉴스』.
- 김미희·김기범·차영란 (2005). 현실 및 가상공간에서의 집단범주화 방식과 상호 작용 여부에 따른 집단성 지각 및 내집단 편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권 3호, 37~54.
- 김상학 (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1권, 169~206.
- 김소운·이현우 (2007). 내러티브 메시지의 설득 효과 및 그 처리과정에 관한 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8권 1호, 76~168.
- 김여라 (2010). 신종플루 뉴스 이용정도가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4권 3호, 207~227.
- 김재휘·서종희 (2006). 일본 TV 드라마 시청이 일본인에 대한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권 4호, 35~46.
- 김정기 (2005). 텔레비전 등장인물과 청소년 시청자의 의사 인간관계. 『한국방송학보』, 19권 1호, 255~285.
- 김창엽 (2003). 무능력의 배제: 질병으로 경계만들기. 『당대비평』, 23호, 3~408.
- 김혜숙 (2002). 고정관념 및 편견과 인간관계.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논총』, 9권, 83~101.
- 나은영 (2010). 『미디어 심리학』. 서울: 한나래.
- 나은영 (2004). 인간 유전체 연구의 보도 경향과 건강 커뮤니케이션적 함의. 한국 언론학회 봄철학술회의 발표논문. 2004년 5월.
- 박수미·정기선 (2006).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70호, 6~26.
- 박정의·이상규 (2002). 암 관련 보도의 적절성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0권 2호, 234~253.
- 배화옥·김유경 (2009).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실증분석. 『보건사회연구』, 29권 2호, 5~76.

- 보건복지부 (2008).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
- 송관재·김범준·홍영호·이훈구 (1997).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 『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권 1호, 123~141.
- 심창학 (2001).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비교 관점에서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4권, 178~208.
- 안윤옥 (1997). 일간지에 게재 보도된 의학, 의료정보 내용의 분석. 『대한의사협회지』, 40권 9호, 1208~1214.
- 오미영 (2005). 도덕적 판단이 드라마 시청재미에 미치는 영향. 『동서언론』, 9권, 175~201.
- 이광자·엄신자·전신현 (2003). 『현대사회심리학』. 서울: 아세아문화사.
- 이동수 (1996). 내용분석을 통한 일간신문 암 관련 기사의 적절성 연구. 『가정의학회지』, 17권 2호, 159~165.
- 이민규·김영은 (2009). 질병 관련 인터넷 정보 이용 효과 연구: 보호동기이론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9권 4호, 506~539.
- 이영경 (2011.8.14). '남성의 병' 심혈관 질환 60세 넘으면 여성이 더 많아. 『경향신문』.
- 정의철 (2008). 에이즈 뉴스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52권 4호, 223~249.
- 주영기·유명순 (2010). 신문, TV 뉴스의 신종 출몰형 질환 및 만성질환 보도 패턴 분석. 『한국언론학보』, 54권 2호, 363~381.
- 최이정 (2009). 장애인 관련 TV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연구. 『언론정보연구』, 46권 2호, 67~99.
- 최진명 (2009). 영화 속 흡연배우에 대한 감정이입이 청소년의 흡연기능 대리학습에 미치는 효과. 『한국방송학보』, 23권 2호, 526~566.
- Bogardus, E. (1933). A social distance scale.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17, 265~271.
- Brown, L., Macintyre, K., & Trujillo, L. (2003). Interventions to reduce HIV=AIDS stigma: what have we learned? *AIDS. Education and Prevention*, 15(1), 49~69.
- Bryand, J., & Zillman, D. (Eds.) (2002).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 research*. Mahwah, NJ: Lawrence Erlbaum.
- Bryant, J., & Thompson, S. (2002). *Fundamentals of media effects*. NY: McGraw-Hill. 배현석 (역) (2005). 『미디어 효과의 기초』. 서울: 한울아카데미.
- Corrigan, P., & Kleinlein, P. (2005). The impact of mental illness stigma. In P. W. Corrigan (Ed.), *On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Practical strategies for research and social change* (pp. 11~4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rocker, J., Major, B., & Steele, C. (1998). Social stigma.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pp. 504~553). BOS: McGraw Hill.
- Dal Cin, S., Zanna, M., & Fong, G. (2003). Narrative persuasion and overcoming resistance. In E. Knowles, & J. Linn (Eds.), *Resistance and persuasion* (pp. 175~191). Mahwah, NJ: Erlbaum.
- Davidson, A. & Wallack, L. (2004). A content analysis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in the print news media.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8, 111~117.
- Dovidio, J., Major, B., & Crocker, J. (2000). Stigma: introduction and overview. In T. Heatherton, R. Kleck, M. Hebl & J. Hul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stigma* (pp. 1~28). NY: Guilford Press.
- Eden, A., Grizzard, M., & Lewis, R. (2011). Disposition development in drama.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and Technology*, 4(1), 33~47.
- Falvo, D. (2009). *Medical and psychosocial aspects of chronic illness and disability* (4th ed.). Sudbury, MA: Jones & Bartlett.
- Gass, R., & Seiter, J. (2007). *Persuasion, social influence, and compliance gaining* (3rd ed.). Boston, MA: Allyn and Bacon.
- Goffman E. (1963).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NY: Simon & Schuster. 윤선길·정기현 (역) (2009). 『스티그마』. 경기: 한신대학교출판부.
- Heatherton, T., Kleck, R., Hebl, M., & Hull, J. (Eds.) (2000). *The social psychology of stigma*. NY: Guilford Press.
- Hoffner, C., & Buchanan, M. (2005). Young adults' wishful identification with television characters. *Media Psychology*, 7, 325~351.
- Horton, D., & Wohl, R. (1956). Mass communication and para-social interaction. *Psychiatry*, 19, 215~229.
- Jones, E., Farina, A., Hastorf, A., Markus, H., Miller, D., Scott, R., & French,

- R. (Eds.). (1984). *Social stigma: The psychology of marked relationships*. NY: W. H. Freeman.
- Kaid, L., & Wadsworth, A. (1989). Content analysis. In P. Emmert & L. L. Barker (Eds.), *Measurement of communication behavior* (pp. 197 ~ 217). NY: Longman.
- Konijn, E. A., & Hoorn, J. F. (2005). Some like it bad: testing a model for perceiving and experiencing fictional characters. *Media Psychology*, 7, 107 ~ 144.
- Latner, J., Rosewall, J., & Simmondsb, M. (2007). Childhood obesity stigma: association with television, videogame, and magazine exposure. *Body Image*, 4(2), 147 ~ 155.
- Martin, J. (1963). Social distance and social stratification.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47, 179 ~ 186.
- McQuail, D. (2005). *McQuail's mass communication theory*. London: Sage.
- Millie, A., Jacobson, J., Hough, M., & Paraskevopoulou, A. (2005). *Anti-social behaviour strategies: Finding a balance*. Bristol: Policy Press.
- Mord, M., & Gilson, E. (1985). Shorter units.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25(4), 9 ~ 19.
- Neuberg, S., Smith, D., & Asher, T. (2000). Why people stigmatize: toward a biocultural framework. In T. Heatherton, R. Kleck, M. Hebl & J. Hul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stigma* (pp. 31 ~ 61). NY: Guilford.
- Paluck, E. (2009). Reducing intergroup prejudice and conflict using the medi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3), 574 ~ 587.
- Parker, J., & Thorson, E. (2009). *Health communication in the new media landscape*. NY: Springer.
- Penn, D., Chamberlin, C., & Mueser, K. (2003). The effects of a documentary film about schizophrenia on psychiatric stigma. *Schizophrenia Bulletin*, 29(2), 383 ~ 391.
- Pilgrim, D., & Rogers, A. (2005). The troubled relationship between psychiatry and soci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51(3), 228 ~ 241.
- Raney, A. (2004). Expanding disposition theory: Reconsidering character liking, moral evaluation, and enjoyment. *Communication Theory*, 14(4), 348 ~ 369.
- Rubin, A., & Perse, E. (1987). Audience activity and soap opera involvement.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4, 246 ~ 268.

- Scott, F., & Alison, L. (2004). Age-related health stereotypes and illusory correl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8(2), 109~126.
- Sherif, C. (1973). Social distance as categorization of intergroup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3), 327~334.
- Singer, E., & Endreny, P. (1993). *Reporting on risk: How the media portray accidents, diseases, disasters, and other hazards*. NY: Reussell Sage Founaction.
- Smith, R. (2007a). Language of the lost: an explication of stigma communication. *Communication Theory*, 17, 462~485.
- Smith, R. (2007b). Media depictions of health topics: Challenge and stigma formats.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2, 233~249.
- Songtag, S. (1989). *Illness as metaphor: AIDS and its metaphors*. London: Penguin. 이재원 (역) (2002). 『은유로서의 질병』. 서울: 이후.
- Tamborini, R., Weber, R., Eden, A., Bowman, N., & Grizzard, M. (2010). Repeated exposure to daytime soap opera and trends in moral judgment toward social conventio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54(4), 621~640.
- Tyrrell, A., Hetz, S., Barg, C., & Latimer, A. (2010). Exercise as stigma management for individuals with onset-controllable and onset-uncontrollable spinal cord injury. *Original Research Article, Rehabilitation Psychology*, 55(4), 383~390.
- Wallack, L. (1989). Mass communication and health promotion: A critical perspective. In R. Rice & C. Atkin (Eds.), *Public communication campaign* (pp. 353~368). Newbury Park. CA: Sage.
- Westie, F. (1959). Social distance scales.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43, 251~258.
- Willits, K., Tompkins, T., & Watson, E. (2010). Stigma and social distance across five diagnostic categories of mental illnes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WP Annual Conference, Portland.
- Zillmann, D. (1996). The psychology of suspense in dramatic exposition. In P. Vorderer, H. Wulff & M. Friedrichsen (Eds.), *Suspense: Conceptualizations, theoretical analyses, and empirical explorations* (pp. 199~231).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최초 투고일 • 2011.12.30

논문 수정일 • 2012.01.31

게재 확정일 • 2012.02.02